

사랑의 집 입주식에서 스님들과 관계자들이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어르신 새 보금자리서 행복을…"

진안 탑사 · 쌍봉사, '사랑의 보금자리' 동참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화재로 집을 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마련에 적극 동참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7월 11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진안군 백운면 박완규씨 집에서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은 지난 1월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주택이 전소돼 임시로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진안군 백운면 박완규 어르신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얻어 15평 규모의 주택건립에 동참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봉사활동에 동참한 진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에 건축 자재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박완규 어르신이 흡족해 하시는 거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은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던 중 딱한 사정을 듣고 신도들과 함께 싱크대 등 생활집기를 지원했다"며 "작은 나눔활동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평소에도 자비의 쌀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고추장 나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 숨결 찾아 떠난 '섬 아이들'

장보고아카데미, 중국서 장보고 유적 탐방

완도 섬 아이들을 위한 장보고 문화답사가 이뤄졌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7~10일 완도지역 섬 아이들 28명을 포함해 지도교사 등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산동성 위해 · 석도 · 연태지역의 장보고 대사 유적지를 답사했다.〈사진〉



석도에는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적산법화원을 비롯해 옛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원 등 다양한 장보고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답사단은 방문기간 중 적산법화원을 방문해 주지 스님을 예방하고, 경내에서 '장보고 문예대회'를 개최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생애 등을 그림과 글, 시로 표현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도법사로 동참한 지성 스님(신흥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은 "완도의 어린 친구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웅대한 뜻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문화답사가 섬 아이들에게 미래의 큰 꿈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답사에 참여한 강경민(초등 6년) 군은 "무엇보다 완도 출신의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장보고 대사처럼 세계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답사단은 법화원 이외에도 성산두, 야생동물원, 갑오전쟁박물관, 해양세계 아쿠아리룸, 봉래각 등을 탐방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茶香, 세계를 감동시키자"

향기로운문화동맹,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조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와 불교로 행복을 전하는 도량 부산 청량사가 국제 차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7월 6일 부산 기장 청량사 경내 마당에서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대식' 및 보혜 스님의 시집 〈마음을 보았는가〉 봉정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청량선문화원의 헌다 '천처(淺處)'를 시작으로 보혜 스님의 시집 〈마음을 보았는가〉 봉정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김대철 한국여천문화원장의 격려사와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특히 향기로운문화동행에서 운영하는 청량사 찻집 '동행' 수익금과 향기로운문화동행 후원가게 달맞이 빵집에서 마련한 장학금을 조은별(신진초 · 5) 외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한국 차 위상을 위해 국제 교류사업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며 최원형 부산차문화교류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조현미 바이올리니스트, 고충진 기타리스트, 국악클럽 탈의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앞으로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차의 위상을 올리고 또, 출발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저희 향기로운문화동행의 행보를 지켜 봐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7월 6일 부산 청량사서 발대
중국 · 일본 등과 차문화 교류
인재불사 위한 장학금 후원도
초등학생 등 4人 총 200만원

부산차문화교류회 발대식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 향기로운문화동행 김순애 운영위원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불교문화 발전과 예술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창단됐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현재 시인이자 이사장인 보혜 스님을 주축으로 음악가, 문학 소설가 및 시인, 다인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족을 통해 국제 차(茶) 교류 활동을 펼치고 다인 후원 및 교육활동도 폭넓게 확장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아울러 중국 및 일본과 함께 세계 차 문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기장차문화대학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 5일이며 수강 내용은 기초 잎차 및 말차 등 생활 다법과 예절 및 헌다를 포함해 전문분야 인문학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는 청량사에서 진행된다.

기장차문화대학은 시낭송 · 문학창작, 선차발우명상, 6대 다류 시음회 지도자 과정 등 차 · 문학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달빛차 음악회, 백일장 및 시낭송대회, 차문화 축제 등을 연다. 지난 1기와 2기에서는 기장경찰서 경찰과 소방관에게 차와 명상을 지도한 바 있다. (051)723-1851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대식을 7월 6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청량선문화원이 발대식을 축하하며 헌다를 진행하는 모습.

'담마' 전하기 위해 한국어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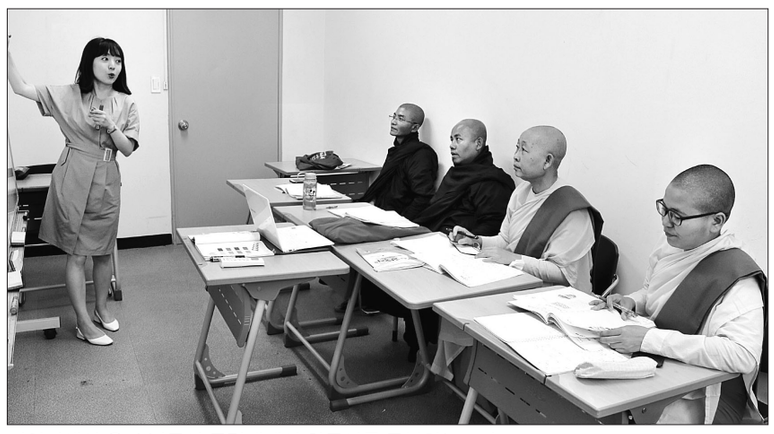
동명대 한국어 강좌에 미얀마 스님들 '눈길'

부산 동명대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에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찾아온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얀마에서 온 판야르바라, 네민다, 루파산디, 이수바티 스님은 한국 전통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고, 동명대(총장 정홍섭)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은 6월 4일부터 3개월간 월~금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받는 중이다. 이 스님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불법 홍포를 위해서다.

이수바티 스님은 "다르마(부처님 법)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한국 불교의 여러 내용도 함께 공부해 차이점을 익히고 알아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명대에서는 미얀마 스님의 한국어 수업을 위해 특별 강의를 개설,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서 온 스님들이 동명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

권중락 동명대 국제교류원장은 "기존 한국어 수업보다 스님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론 손해지만 스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한 달가량 수업을 진행했는데 스님들의 한국어 실력이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명대는 지난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명대는 베사반 초등학교 놀이터 보수와 크나트 초등학교 놀이터 설치 기증 및 개장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호물품을 기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봉 스님의 선풍 후학들이 이을 것"

경봉 스님 열반 36주기 다례재

한국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의 열반 36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경봉문도회(대표 법산)는 7월 10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대종사 3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영배 스님, 경봉문도회 대표 법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대표 법산 스님은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스님의 법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수행정진 해 승풍을 진작하고 깨달음을 얻어 훌륭한 수행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봉장학회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스님 40명에게 장학금 3600만원과 극락암 호국선원, 보광선원, 서운암 무위선원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수행지원금 및 연구비 8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